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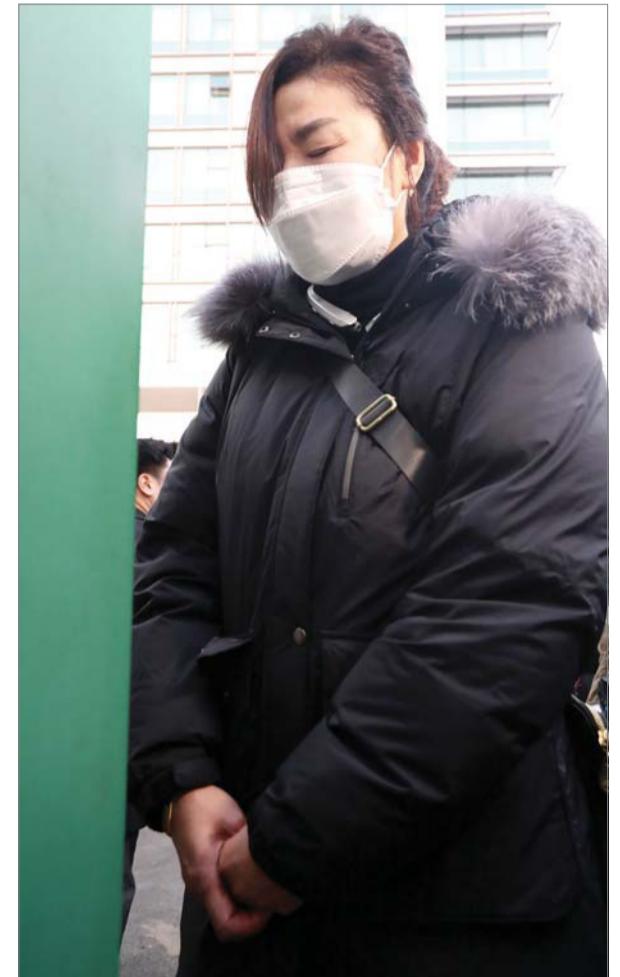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수험장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 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15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앞에서 수험생의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2019 대입수능, 60만명 응시

9월 모평보다 어려워… 체감 난이도 높았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5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전년보다 1397명이 증가한 59만4924명이 도전했고, 이 중 재학생은 44만8111명, 졸업생 등은 14만6813명이다.

수능 지원자는 지난해 대비 재학생 비중이 증가했으나, 최근 수시모집 선발인원 증가와 대학들의 수시모집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과 증가함에 따라 결시율이 상승 추세다. 높은 결시율은 수험생들의 상대평가 영역 성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능 전체 영역 결시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10.5%를 기록했다. 이날 1교시 국어 결시율은 9.48%로 전년(9.46%)보다 소폭 상승했다.

수능 주요과목인 국어와 수학의 경우 전년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어 영역의 경우 현직 교사와 입시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고난도 문항은 26번, 31번, 42번, 11번이 꼽힌다. 국어는 어렵게 출제됐던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9월 모의고사보다 어려워 수험생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만점자비율 0.61%)으로 어려웠다. 올해 국어 1등급 구분점수(등급컷)가 지난해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수학 영역 고난도 문항은 21번, 29번, 30번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수학 영역의 경우 작년 수능과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신유형 문제도 출제돼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부산 동래구 중앙여고에서 한 수험생이 휴대전화기 제출을 위해 이름을 적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 내실화 위해 기본 충실, EBS 연계 70%”

이강래 수능 출제 위원장

이강래 2019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전남대 교수)은 15일 “올해 수능은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된 내용이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른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와 발상, 접근 방식 등을 일부 수정하여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어 영역과 영어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했다”며 “수학영역과 기타영역은 개별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의 경우, 기본 소양 평가를 위해 핵심내용 위주로 가급적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덧붙였다.

문항별 배점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상의 중요도, 문항의 난이도, 풀이에 필요한 사고수준,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배점했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경향 밝히는 이강래 위원장.

/연합뉴스

이어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출제기준을 유지하려 했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난이도와 관련해선 “예년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출제위원장은 EBS 수능 교재의 영역·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어영역은 71.1%, 수학은 70%, 영어 73.3%, 나머지 탐구·외국어 영역은 70%가 연계됐다.

/이범종 기자 joker@

전국 1190개 시험장서 일제 시험
재학생 45만, 졸업생 15만명 도전
수시 선발 증가 등에 결시율 상승

국어,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어려워
수학, 신유형 등장… 체감난이도 ↑

19일 18시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평가원, 26일 17시 최종 정답 확정

다. 조만간 판곡고 교사는 20번, 21번, 29번, 30번 문항을 어려운 문항으로 꼽고 이 문항 해결 여부에 따라 등급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고, 풍문고 손태진 교사도 20번, 29번, 30번 문항을 지목해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분석했다.

1교시 국어영역 오탈자는 33~35번 관련 지문과 보기의 ‘봄을 바라보고’가 ‘봄을 바라고’의 오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어·수학 예년보다 대체로 어려워 ‘불수능’

국어, 26~31번 지문이해 어려웠을 것
1등급 등급컷 작년 94점보다 낮을 듯
수학, 21·29·30번 고난도 문항 꼽혀

올해 수능 주요과목인 국어와 수학 모두 지난해와 비슷하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지속 상승 추세인 결시율은 국어 수학 등 상대평가 영역에서 수험생들의 성적을 바꾸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1교시 국어에 59만2229명이 지원했으나, 이 가운데 5만6122명(9.48%)이 결시했다. 실제 응시자는 53만6107명이다. 이는 전년도 59만1324명이 지원했다가 5만5936명(9.46%)이 시험장에 나오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한 것이다.

◆ 국어 “전년 수능과 비슷, 어려웠다”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난이도는 전년도 수능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됐다. 특히 국어 26번, 31번, 42번, 11번이 어려운 문항으로 꼽혔고, 지난 9월 모의고사보다 어려워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수능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 134점, 1등급컷 94점, 만점자비율 0.61%로 어렵게 출제됐었다. 올해 국어는 지난 6월 모의고사와 비슷하거나 쉬웠지만, 9월 모의고사보다는 어려웠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주천한 현장교사들은 이날 국어 영역이 끝난 뒤 “올해 수능 국어영역은 지난해와 비슷하고,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며 “수험생들 체감 난이도는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사들은 어려웠던 문제로 26번과 31번을 꼽았다. 조영혁 서울과학고 교사는 “31번 문항은 과학 지문이 두 면에 걸쳐 출제됐는데, 수험생들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험생들이 26번~31번 문항을 푸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해 뒤에 나온 문제 풀이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수환 강동명문고 교사도 “두 작품을 연계해 출제된 26번 문항이 고난도 문항으로 꼽힌다. EBS 연계 작품이 아니어서 낯설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국어 영역
1
출수형

[제 1 교시]

[1~3] 다음은 라디오 방송이다. 물을에 답하시오.

혹시 어제운 방길을 걸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방길을 혼자 걸은 적이 있는데요, 처음엔 아둡고 무서웠지만 달려온 어여지 않게 걸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달빛 같은 방송, 청취자의 시연을 읽고 상담해 주는 ‘나에게 말해 주’ 시간입니다. 저는 이 방송의 진행자인 심리 상담가 ○○○입니다. 오늘의 시연을 들어 드릴까요.

저는 고등학생 □□고 해요. 제 친구는 자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해요. 차분하고 손제주도 좋은 친구인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안타까워요. 또 작은 실수에도 ‘난 형상 아래.’라며 자책하고 우울해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님은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네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저도 □□님처럼 안타깝네요.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친밀적인 경기와 태도를 나타내는

[4~6] 다음은 위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진행자가 세운 계획이다. 방송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오프닝) 방송의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 ‘달빛’ 이야기로 시작
(시연 소개 및 고민 진단)
○ 시연 신청자가 보면 시연 소개
○ 내용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자존감이라는 용어의 의미 제시 ... ①
○ 자존감이 낮은 원인 중 일련작으로 알려진 원인을 제시하고 시연의 문제 상황에 적용 ②
○ 시연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한 문제 상황 제시 ... ③
(방법 제시)
○ ‘장점 말해 주기’ 방법을 안내하고 효과 제시 ④
○ ‘감정 해아버지 주기’ 방법을 예를 들어 소개하고 효과 제시 ... ⑤
(클로징) 청취자 게시판에 관한 안내 및 인사말로 마무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다음은 위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이 게시판에 올린 댓글이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영역(출수형) 문제지.



수능 대박 기원!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5일 이른 아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시민들이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특히 독서파트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어렵게 출제됐다”면서 “9월 모의고사와 비교하면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수험생들에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문항으로 31번(출수형) 우주론 관련 문항, 42번 논리학 문항, 11번 문법 문항을 꼽았다.

문학의 경우는 EBS 체감 연계율이 높아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큰 부담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됐고, 이외 화법과 작문은 평소 기출문제 유형과 비슷하게 출제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

은 “올해 수능 국어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됐고,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다소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했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남윤곤 소장은 “전년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며 “특히 11번 문법 문항의 경우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당황한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상교육 이치우 입시평가실장은 “매우 쉬웠던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물론 다소 까다로웠던 작년 수능보다도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1등급 구분점수(등급컷)가 작년 수능(94점 추정)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능을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1교시 국어 영역 출제 방향과 관련해 “지문의 소재를 특정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소재를 두루 취했다”며 “대학과정 학업에 필요한 국어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 수학 “9월 모평과 비슷하거나 어려워”

수능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21번, 29번, 30번이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수능 2교시 이후 대교협 현장교사들은 대체로 작년 수능과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워다는 반응이 많았다.

조만기 판곡고 교사는 “20번, 21번, 29번, 30번 문항 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갈릴 것”이라며 “수학 나형에서 21번, 29번, 30번, 21번과 29번 문항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수험생들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풍문고 손태진 교사도 “가형에서 20번, 29번, 30번 문항은 한가지만 아니라 두가지 개념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 29번 벡터 문항은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지 찾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자연계 수험생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은 도형과 관련한 삼각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미분법을 활용해 그래프 개형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함수의 적분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표본평균을 이용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등이 출제됐다.

인문계에서 주로 응시하는 수학 나형의 경우는 그래프 성질을 이해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 함수의 접선과 그래프 개형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 정적분의 정의와 성질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여사건의 확률의 뜻을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 등을 냈다.

수능 출제본부는 수학 영역 출제 방향에 대해 “복잡한 계산을 지양하고,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해 해결하는 문항보다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햄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했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마다 다른 ‘영역별 반영비율’ 당락 가른다

수능 ‘합산점수’ 지원 범위 확인만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인원 등
수시지원대학 예상 수치 살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면서 8만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 경쟁이 시작됐다. 수험생은 대학별로 제각각인 평가 방식과 정원 등을 고려해 자신의 유불리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접계해 발표한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에는 196개 4년제 대학이 참여해 8만2787명(전체 모집인원의 23.8%)을 뽑는다. 지난해 말 치러진 2018학년도 정시모집 인원 9만2652명에 비하면 1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모집군별로 보면 가군에서는 인문계 기준 48곳, 자연계 52곳이 신입생을 선발한다. 나

군은 인문계 61곳과 자연계 52곳, 다군은 인문계 39곳과 자연계 36곳이 모집한다.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곳이 많다. 정시 모집인원의 87.1%인 7만2251명이 수능 전형으로 선발된다.

대학별 정시 수능점수 반영 방식을 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가군에서 표준점수+탐구변수 ▲서울교대와 흥의대는 표준점수 ▲국민대와 숙명여대는 백분위를 본다.

대학 지원의 첫 단계는 가채점이다. 교육업체들은 수능 가채점 이후 단순 합산 점수는 큰 지원 범위를 확인하는 1차적 단계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대학의 영역별 반영비율을 적용해 대학별 환산점수로 대학별 고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A학생의 표준점수 총점이 375점이고 B학생의 총점은 373점이지만, 경희

대의 영역별 반영방식을 적용할 때 A학생은 543.7점, B학생은 552.9점으로 뒤집힐 수 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논술전형은 수능 이후 준비 기간이 짧고 대학별로 일정이 겹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가채점 성적으로 수시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와 최저학력기준의 충족 인원 예상 수치를 살펴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두 대학의 일정이 겹치거나 시간상 같이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선호하는 대학이 따로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경쟁자의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의 대학별 고사를 응시하는 것이 입시적으로는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논술전형 모집 인원은 33개교 1만 3310명으로 지난해 31개교 1만3120명보다

소폭 늘었다. 대학별 논술고사 일정은 수능 직후인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정시모집 기간은 모집군에 상관없이 12월 29일~1월 3일이다. 정시 등록기간은 1월 30일~2월 1일이다.

한편 전문대 2차 수시모집은 133개교에서 4만2912명(전체 모집인원의 21%)을 선발한다. 정원 내 모집에서는 일반전형 1만3114명(30.6%), 특별전형 2만4286명(56.6%)을 선발한다.

정원 외 모집에서는 전문대졸 이상 전형 1990명(4.6%),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1773명(4.1%) 순으로 모집한다.

지난 6일 시작된 전문대 수시모집 2차 접수는 이달 20일까지 이어진다. 대학 간 복수 지원과 입학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14일, 등록은 19일까지다. 충원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12월 20일~28일이다.

/이병종 기자 joker@



사람을 키우는
경민대학교

꿈과 도전이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DBDB=
=DEEP=

경민대학교

Do Better Do Best DEEP KYUNGMIN!

4반세기 경민, 4차산업융합대학

미래를 만듭니다. 젊은 내일을 키웁니다.

꿈을 갖고,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는 젊은 경민대학교는 그 혁신과 변화의 현장에서

4차산업을 이끌어 나아갈 젊은 기술인, 젊은 패기와 능력,

무한상상력과 도전정신을 갖춘 기술융합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형 일정

수시 2차 : 2018.11.06(화) ~ 11.20(화)

정 시 : 2018.12.29(토) ~ 2019.01.11(금)



교육부주관 (2017. 12. 21 ~ 2020. 12. 20)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기관평가인증 성공사례 '변화우수대학'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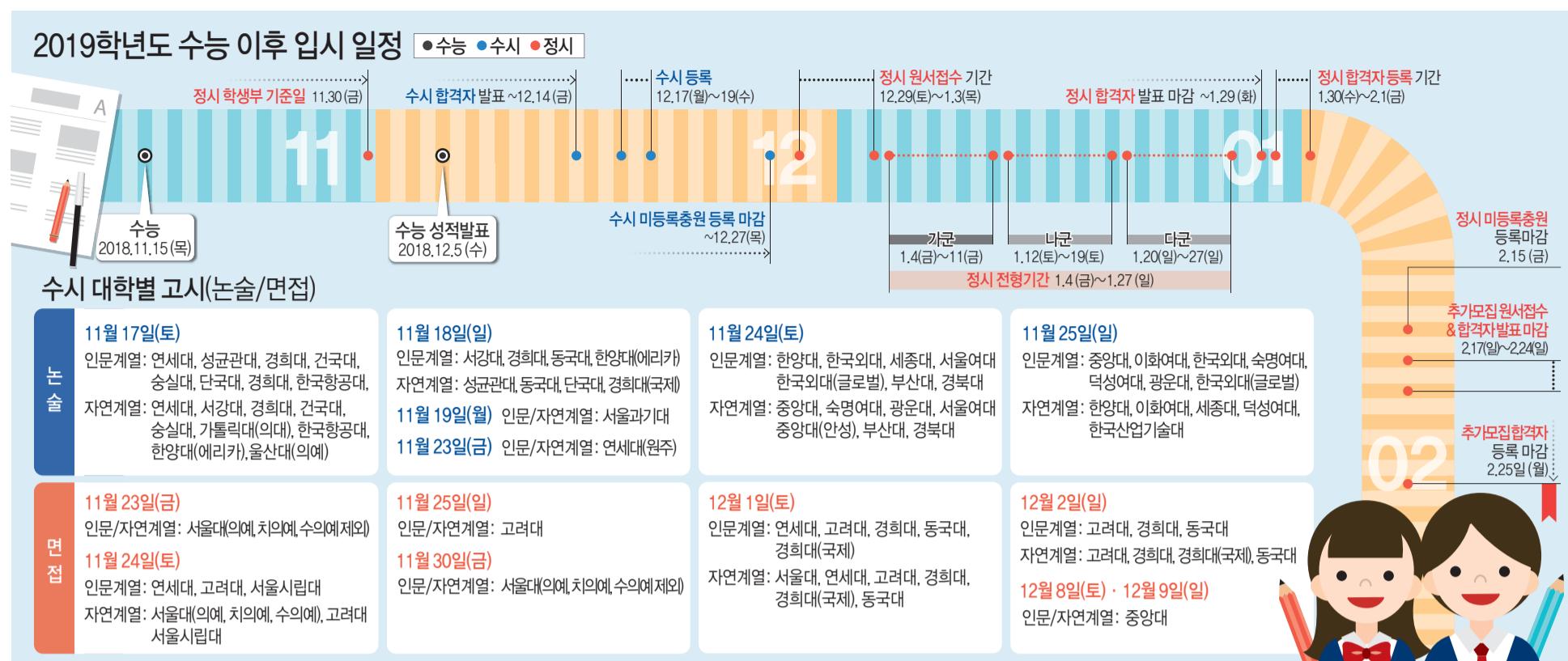
교육부 2017년 교원양성기관평가
유아교육과 최우수 A등급 선정



간호학과 (2016. 12. 12 ~ 2021. 12. 11)
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대학 중장기 발전 · 특성화 계획
'Promise 2022' 비전목표 수립



수능 끝... 주말부터 논술·면접 대비

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결정... 논술은 '기출' 활용

수능 최저·유형 파악해 지원전략 마련
논술고사 17일·면접전형 23일부터 시작
12월 5일 성적표, 6곳 포트폴리오 짜야

수능이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다. 자신의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모집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도 정해야 한다. 내달 5일 성적표를 받으면 정시모집 지원 가능 대학 6곳을 최종 선정해야 한다. 또 수능 직후 주말부터 진행되는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도 대비도 바로 준비해야 한다.

◆ 수능 당일 저녁 “가채점, 수능최저 통과 여부,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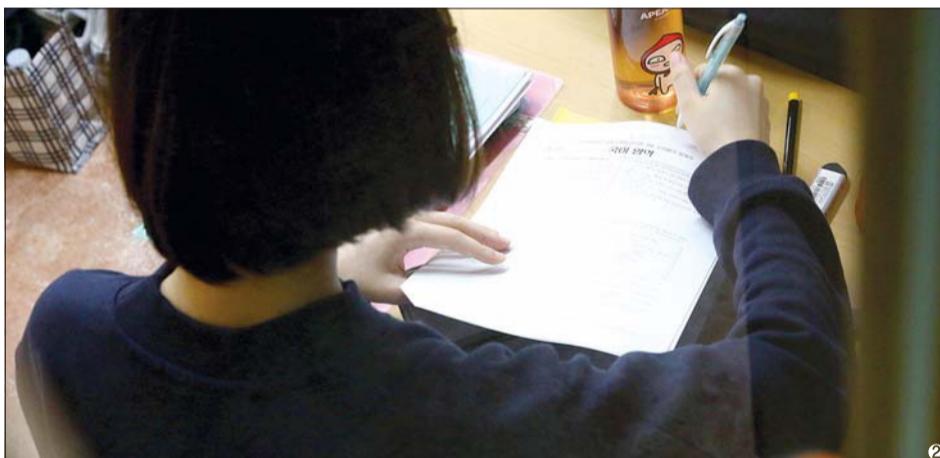
수험생들은 우선 수능 당일 저녁 자신의 수능 가채점을 통해 대학별 정시모집 수능 반영 유형에 따른 유불리를 파악해 지원전략을 짜야 한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학별 전형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도 불합격하므로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부터 파악해야 한다.

특히 평소보다 수능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수시모집 지원 대학의 대학별고사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수능 점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다면 수능 위주 정시모집에 적극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능 시험을 잘 봄 정시모집으로도 합격이 가능할 경우에는 수시모집 대학별고사 응시 포기도 고려할 수 있다.

수능 가채점 기준 지원 전략을 짤 때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나 백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대다수 대학이 수능 점수를 표준점수나 백분위 성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수능 성적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내달 5일 받아볼 수 있다. 정시모집 지원 대학은 이날 이후 실체점 기준으로 지원 대학을 최종 정하는 것이 좋다. 가,나,다 3개 군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선별한 후 군별 지원전략 포트폴리오를 짜 유리한 6개 전형에 도전할 수 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12월 29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 기간씩 진행된다. 이때는 최근 지원 동향과 입시 변수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마감 일자와 시간을 체크해 지원해야 한다.



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치뤄진 15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앞에서 각 학교의 응원단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②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수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장은 “5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대학별 반영영역 수, 탐구영역 반영 과목수, 영어반영 방법, 전형 요소나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부여 여부 등 자신의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전형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급선

무”라며 “이를 토대로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면 유리한 전형을 쉽게 뽑아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에 집중**

수능 직후 주말부터 대학별로 치러지는 논술 면접고사에는 수능 가채점을 바탕으로 응시 여부를 점해야 한다. 이 때 핵심적

도 응시 여부를 정해야 한다. 이 때 학점적
인 기준은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여부다. 이
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흔히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 기준을 자신이 지원
한 수시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
과 가능성으로 여기곤 한다”면서 “하지만 대
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
능 가채점 성적을 통해 정시 지원을 하게 될

때의 지원 가능한 위치”라고 조언했다. 즉 수능 가채점 점수로 수시모집에 지원한 대학을 정시모집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정해야 한다 설명이다.

첫 논술고사(인문계)는 17일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일부), 건국대, 숭실대, 단국대, 경희대(국제), 한국항공대를 시작으로 18일 서강대, 경희대(일부), 동국대, 한양대(에리카), 19일 서울과기대, 23일 연세대(원주)로 이어진다.

자연계 논술도 17일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숭실대, 가톨릭대(의대), 경희대(국제캠퍼스 일부),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 울산대(의예)를 시작으로, 18일 성균관대, 동국대, 단국대, 경희대(국제캠퍼스 일부)가 치르고, 19일 서울과기대 순으로 진행된다.

치의예, 수의예 제외)에서 처음으로 치러진다. 이어 24일 연세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서울대(의예, 치의예, 수의예) 일부 전형 면접이 진행되고, 25일(고려대), 30일(서울대 지역균형), 12월 1일(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경희대국제, 동국대)과 2일, 8일, 9일 등 주말에 주로 치러진다.

짧은 기간 논술·면접 대비는 기출문제 활용이 효과적이다. 김명찬 종로학원 평가연구소장은 “도의논술을 분석해보면,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논술 출제경향의 변화가 없다”면서 “기출문제만으로 부족한 경우 자신이 지원한 대학과 출제 유형이 비슷한 대학 기출문제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 입시업체 가채점 및 지원가능 여부 참고

입시업체가 수능 직후 제공하는 가채점과 지원가능 대학 서비스 등은 맹신하기보다는, 자신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지원 가능한 대학의 수준을 가늠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투스교육은 이날 수능 종료 후 직후 '이투스 2019 수능 온라인 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투스 웹 또는 모바일 페이지에서 자신의 답안을 입력하면 채점과 성적분석, 실시간 등급컷, 지원가능 대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6일부터는 이투스 교육평가 연구소가 제공하는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의 성적에 맞는 대학과 상세조각을 겸색해 정시지원 절차를 세울 수 있다.

에스티유니타스 ‘커넥츠 스카이에듀’도 당일 수능 풀서비스를 제공, 수험생들이 빠른 채점을 통해 합격 예측 시뮬레이션을 지원한다. 커넥츠 스카이에듀 역시 자신의 답안을 입력하면 원점수와 예상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확인은 물론 경쟁자와의 영역별 비교나 전년도 경쟁률 지원 가능 점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설명회도 수능 다음날부터 잇따라 열린다. 메가스터디학원은 16일~24일 까지 강남, 신촌, 분당, 일산, 부천, 평촌 등 10곳에서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종로학원도 16일 오후 3시 이화여대에서 '종로학원 2019 대입설명회'를 시작으로 25일까지 부천, 인천, 일산, 분당, 평촌, 세종, 대구 등에서 전국 설명회를 진행한다. 종로학원은 설명회 참가자에게 정시 대학 배치참고표를 제공하고, 수능 정시 유불리 과목 집중 분석, 영어 2,3등급대 이하 서연교 및 주요대 합격 전략, 전년도 대학별 합격점수 등을 공개한다.

Canon
Delighting You Always

SECRET SANTA FESTIVAL

“시크릿 산타가
나에게 찾아올까?”



* 캐논 시크릿 산타 페스티벌

올 겨울 시크릿 산타가 매주 1,000명을 찾아갑니다!

- ◆ 지금 캐논 카메라를 구입하고 정품 등록하면
100% 선물을 드립니다!

· 기 간 2018년 11월 15일(목)~2019년 1월 6일(일)
· 대상기종 EOS 77D / 800D / 200D / M50 / M6 / M100
*사은품은 기종별로 상이



- ◆ 캐논 정품등록 이벤트 참여한 분 중
매주 1,000분께 시크릿 산타가 찾아갑니다!

· 총 6,000명에게 최대 현금 100만원의 시크릿 선물 증정
*매주 추첨을 통해 발송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www.canon-ci.co.kr) 참조

제1교시
[홀수형]

국어영역

[1~3] 다음은 라디오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혹시 어두운 밤길을 걸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밤길을 혼자 걸은 적이 있는데요, 처음엔 어둡고 무서웠지만 달빛 덕분에 어렵지 않게 걸었답니다.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달빛 같은 방송,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상담해 주는 '나에게 말해 줘' 시간입니다. 저는 이 방송의 진행자인 심리 상담가 ○○○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읽어 드릴게요.

저는 고등학생 □□라고 해요. 제 친구는 자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해요. 차분하고 순박한 좋은 친구인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안타까워요. 또 작은 실수에도 '난 항상 아래.'라며 자책하고 우울해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돋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님은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돋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신다는 거네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저도 □□님처럼 안타깝네요.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나타내는 말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에는 남과 비교하는 버릇이 원인인 경우와 자책하는 태도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 속 친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탓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장점 말해 주기'와 '감정 헤아려 주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친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자주 말해 주세요. 그러면 친구가 자신의 장점을 깨닫고 남과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만약 친구가 실수해서 자책하고 있으면 "많이 속상하겠구나.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라며 친구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식으로요. 그러면 친구가 스스로 괜찮다고 느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책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청취 소감은 언제든 게시판에 올려 주세요. 그럼 △△의 노래 '우리 함께'를 들으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1. 위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연 내용을 정리하고 사연 신청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
- ② 사연 신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음 방송을 예고하고 있다.
- ③ 사연 내용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청취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④ 사연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고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사연에 대한 상담 중에 질문을 던지고 사연 속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진행자가 세운 계획이다. 방송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오프닝] 방송의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 '달빛' 이야기로 시작
[사연 소개 및 고민 진단]

- 사연 신청자가 보낸 사연 소개
- 내용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자존감이라는 용어의 의미 제시 ... ⑦
- 자존감이 낮은 원인 중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인을 제시하고 사연의 문제 상황에 적용 ⑮
- 사연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한 문제 상황 제시 .. ⑫

[방법 제시]

- '장점 말해 주기' 방법을 안내하고 효과 제시 ⑯
- '감정 헤아려 주기' 방법을 예를 들어 소개하고 효과 제시 ... ⑰

[클로징] 청취자 게시판에 관한 안내 및 인사말로 마무리

- ① ⑦ ② ⑮ ③ ⑯ ④ ⑰ ⑤ ⑪

3. 다음은 위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이 게시판에 올린 댓글이다. 방송 내용을 고려하여 청취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나에게 말해 줘' 게시판
○월 ○일 방송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 주세요.

↳ 청취자 1: 저도 자존감이 낮은 거 같아서 좋은 방법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들었는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안 나오네요.

↳ 청취자 2: 자존감을 높여 주려면 자기만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 주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도달하게 하는 방법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 청취자 3: 말아이의 자존감이 형상되도록 앞으로는 제 아이에게 긍정적인 멘들을 말해 줘야겠어요.

↳ 청취자 4: 도와주고 싶은 대상의 연령대가 사연 속 친구와 다를 때에도 방송에서 알려 준 방법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 청취자 5: 감정을 헤아려 주는 건 좋은 방법이네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친구들이 속상했을 텐데 활용해 볼게요.

- ① '청취자 1'은 자신이 방송을 들은 목적과 관련해 방송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군.
- ② '청취자 2'는 방송 내용을 이해한 바를 확인하고 방송에서 안내되지 않았던 방법의 효과를 예측하고 있군.
- ③ '청취자 3'은 방송에서 언급한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적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군.
- ④ '청취자 4'는 방송에서 제시한 방법을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군.
- ⑤ '청취자 5'는 방송에서 언급한 방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반성하고 있군.

[4~7] (가)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기사문의 초고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표제】 성금 마련을 위해 모두가 함께해

[전문] 지난 10월 4일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K 군을 돋기 위해 응원 메시지를 달고 사제동행 마라톤 행사를 함께했다. **[본문]** 선생님 32명과 학생 174명이 함께 달린 이 행사는 K 군 (2학년)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학생회가 주최하였다. 한 달 전 교실에서 쓰러져 입원한 K 군의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이 병원비 모금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의미가 컸다. 또한 행사 참가자들은 모두 5천 원씩의 성금을 내고 학교 인근 △△공원 일대 4km 구간을 완주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마라톤을 즐겼던 K 군을 생각하며 응원 메시지를 가슴에 달고 뛰었다. △△공원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힘내라며 응원을 보냈다. 이날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다. 마라톤이 끝난 뒤,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며 성금을 기탁한 시민도 있었다. K 군의 담임선생님은 "친구를 돋기 위해 학생회가 앞장선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나)

학생 1: 사제동행 마라톤 행사를 다룬 기사문을 검토할게.

학생 2: 이 기사문은 네가 작성한 거지?

학생 3: 응, 초고라서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아.

학생 1: 우선 표제와 전문에 대해 논의하자. 표제를 수정하고, 전문은 육하원칙 중 짧은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 같아.

학생 3: ① 네 말을 들으니 전문은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할지 알겠는데, 표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말해 줄래?

학생 1: 표제는 중심 소재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표제에는 어떤 행사가 열렸는지 드러나지 않잖아.

학생 3: 그려, 표제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학생 1: 그리고 행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써 보는 건 어때?

학생 2: 그러면 한눈에 기사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잖아. 대신에 참가 인원수를 적자.

학생 1: ① 네 말대로 하면 행사 규모에 초점이 맞춰져서 행사의 의미를 드러내려는 기사문의 의도가 살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학생 3: 두 의견을 들어 보니, 네 의견대로 중심 소재를 담고 화합이라는 행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표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생 1: 응, 그래.

학생 1: 다음으로 본문에 대해 논의하자.

학생 3: ② 선생님과 학생이 한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한 모습이 드러나게 쓰려 했는데, 어때?

학생 2: 응, 그 점은 잘 드러나게 쓴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셨는데 본문에 그 내용을 빠뜨린 것 같아. 수정이 필요해.

학생 3: 그 부분은 일부러 그렇게 쓴 건데, 이상해?

학생 2: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궁금해.

[B]

학생 3: 응원 메시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제안한 거라 학생의 역할을 강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학생 2: 실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다뤄야지.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 정보를 누락하면 안 돼.

학생 1: 맞아.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지.

학생 3: 그레게. 내가 잘못 생각했네. 수정해 올게.

학생 1: ③ 그런데 이번 행사는 그 의미가 중요한 만큼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기로 하지 않았어?

학생 3: 아, 맞다. 지난 회의에서 그러자고 했는데 있었는데, 거기에 학생 인터뷰를 넣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안 넣고.

학생 1: 응, 학생회장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한 인터뷰 있잖아. 그걸 넣으면 될 것 같아.

학생 2: 행사 이후 결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 좋겠어.

학생 3: 고마워. 지금까지 나온 의견 모두 반영해서 써 볼게.

학생 1: 그런데 글의 분량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학생 2: ④ 기사문이 실릴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작성할 내용은 많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학생 1: 지금 다시 읽어 보니 본문에 불필요하게 중복된 내용의 문장이 있어. 그걸 삭제하면 글의 분량이 줄어들 것 같아.

학생 3: 지면의 크기도 염두에 두면서 기사를 써야 하는구나. 알겠어. 그렇게 할게.

학생 2: 아, 그리고 성금을 5천 원씩 낸 건 학생이었고, 선생님은 만 원씩 내셨어. 사실에 맞게 본문을 수정해 줘.

학생 3: 그렇게. 처음 써 본 기사문이라 부족한 게 많아.

학생 1, 2: 괜찮아. 기사 쓰느라 고생했어.

4. '학생 3'이 (나)를 참고하여 (가)를 고쳐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표제 수정하기

→ '작은 물방울들 하나 되어 희망 만드는 사제동행 마라톤'으로 수정해야겠군. ②

○ 전문 수정하기

→ '지난 10월 4일 △△공원 일대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K 군을 돋기 위해 응원 메시지를 달고 사제동행 마라톤 행사를 함께했다.'로 고쳐야겠군. ④

○ 본문 수정하기

→ 첫째 문단 마지막 문장을 '또한 행사 참가자들 중 선생님은 1만 원씩, 학생은 5천 원씩의 성금을 내고 학교 인근 △△공원 일대 4km 구간을 완주했다.'로 수정해야겠군. ⑤

→ 둘째 문단 첫 문장을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마라톤을 즐겼던 K 군을 생각하며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었다.'로 고쳐야겠군. ④

→ 둘째 문단에서 '이날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다는'를 삭제해야겠군. ④

① ② ② ④ ③ ⑤ ④ ④ ⑤ ④

5.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로 작성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학생회장은 "행사 홍보가 힘들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다."라고 밝혔다. 선생님과 학생 누구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린 의미 있는 행사였다.

② 학생회장은 "준비 기간이 짧아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무사히 마무리되어 기뻤다."라고 밝혔다. 행사에서 모인 성금은 다음 날 학생회장이 대표로 K 군 가족에게 전달했다.

③ 학생회장이 계획하고 준비한 이번 행사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한 인상적인 행사였다. 행사 이후 K 군 가족은 성금을 전달받고, 학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④ 학생회장은 "장소 섭외가 힘들었지만 뜻 깊은 경험이었다."라고 밝혔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고, 모금된 성금은 K 군 가족에게 전달됐다.

⑤ 학생회장은 "어려운 친구를 생각하며 기쁘게 완주했다."라고 밝혔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달리며 뜻을 모을 수 있었던 행사였으며, 학생회에서 성금을 K 군 가족에게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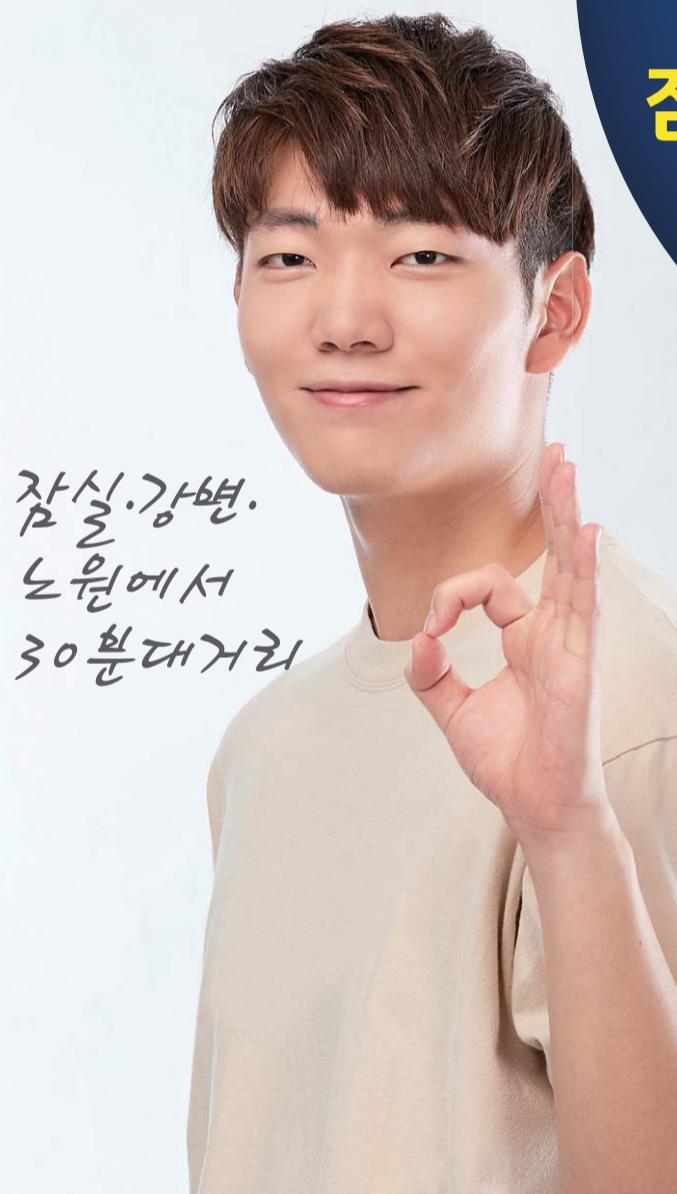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 문제 | 정답 | 배점 | 문제 | 정답 | 배점 |
|----|----|----|----|----|----|
| 1 | ① | 2 | 2 | ③ | 2 |
| 3 | ③ | 3 | 4 | ④ | 2 |
| 5 | ④ | 2 | | | |



대진대학교 Let's DJ!

잠실·강변·노원에서 30분대!
국내 최초 중국현지 캠퍼스!



대진대학교 2019학년도 정시모집 일정안내

원서접수 2018.12.29(토) ~ 2019.1.3(목)

실기고사 2019.1.21(월) ~ 1.22(화)

합격자 발표 2019.1.29(화) 예정

대순종학대학

대순종학과
인문예술대학
한국어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문예창작학과
현대조형학부
디자인학부
연극영화학부

글로벌산업통상대학

글로벌경제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지역학부
과학기술대학
수학과
생명화학부
간호학과
스포츠과학과
식품영양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휴먼건축공학부

공공인재대학

공공인재법학과(주/야)
행정학과(주/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보육학과(야)
휴먼케어평생교육학과(야)

휴먼IT공과대학

휴먼IT융합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에너지환경공학부
컴퓨터응용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산업공학과



대진대학교
DAEJIN UNIVERSITY

6.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⑦~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 상대의 제안 중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대에게 요청하는 발화이다.
- ② ⑧: 상대의 제안은 기사문에서 강조하려는 바와 달리지게 한다고 판단하여 반대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발화이다.
- ③ ⑨: 화합의 모습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본문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상대의 생각을 확인하는 발화이다.
- ④ ⑩: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작성에 대해 논의했던 사항이 무엇인지를 상대에게 확인하는 발화이다.
- ⑤ ⑪: 글의 분량을 언급한 상대의 의견에 대해 지면의 크기를 이유로 들어 상반된 의견을 드러내는 발화이다.

7.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3'은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측에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은 비판하고 있고, '학생 1'의 의견은 지지하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을,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1'이 '학생 2'의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2'가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을 점검하고 있다.

[8~10] 글을 쓰기 위해 (가)의 메모를 작성한 후, (나)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학습 활동 과제: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급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글을 쓴다.

○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

- 일부 학생들은 로봇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⑦
-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⑧
- 로봇세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 ⑩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한 설문 조사에서 ④ 전체 응답자 중 86.6%가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52.2%는 자신의 직업이 로봇으로 인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과거에도 ⑤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가 있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증가했다. ... (중략) ... ⑥ 로봇 기술 중 상당수는 특허권 등록의 대상이므로, ⑦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중략) ... ⑧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로봇세가 로봇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 로봇 전문 잡지 『○○』 -

(다) 학생의 글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로봇세는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다. 하지만 나는 로봇세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로봇세는 공정한 과세로 보기 어렵다. 널리 쓰이고 있는 모바일 맹꽁이나 티켓 자동 발매기도 일자리를 줄였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로봇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개인은 이미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로봇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면 한 번의 이익에 두 번의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불공평하다.

앞으로 로봇 수요가 증가하면서 로봇 시장의 위위를 선점하기 위한 로봇 기술 개발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로봇 기술 중 상당수가 특허권이 인정되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술 개발 의지가 약화되어 로봇 기술의 특허권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로봇 사용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은 선진 로봇 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므로 막대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어 국가적으로 손해이다.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 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기술로 인해 전체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걱정은 늘 존재했지만,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우리는 로봇 덕분에 어렵고 위험한 일이나 반복적인 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로봇 사용의 증가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 로봇세의 도입으로 이러한 편안한 삶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8. ⑦~⑩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을 고려해, 로봇세의 납부 주체를 포함한 로봇세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② ⑧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
- ③ ⑨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로봇세 도입의 취지를 언급한다.
- ④ ⑩을 고려해, 로봇세 도입과 로봇 기술 개발의 관계를 제시하여 로봇세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 ⑤ ⑪을 고려해, 일자리가 증가해 온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음을 부각한다.

9.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④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 ② ⑤의 사례를 찾아, 이를 로봇의 경우와 비교하여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 ③ ⑥를 이유로 들어,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어질 경쟁의 양상을 예측하여 제시했다.
- ④ ⑦를 구체화하여, 로봇세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 ⑤ ⑧에서 한쪽의 의견을 선택하여, 로봇세 부과가 로봇 관련 특히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10.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는 로봇 하나당 대체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로봇 사용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로봇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 ① 로봇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던 산업 혁명의 경험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 ② 로봇의 생산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사례만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 ③ 로봇 사용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④ 로봇세를 도입해 기업이 로봇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인간의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다.
- ⑤ 산업 혁명의 경우와 같이 로봇의 생산성 증가는 인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11. <보기>의 ⑦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쉬리, 마루, 구설, 모래, 소리, 구슬, 머루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 현의 앞뒤 입술 모양 높낮이 | 전설 모음 | | 후설 모음 | |
|--------------------------|-------|----|-------|----|
| | 평순 | 원순 | 평순 | 원순 |
| 고모음 | ㅣ | ㅟ | ㅡ | ㅜ |
| 중모음 | ㅔ | ㅚ | ㅓ | ㅗ |
| 저모음 | ㅐ | ㅟ | ㅏ | ㅏ |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⑦을 확인할 수 있군.

① 2개의 전설 모음

② 2개의 중모음

③ 3개의 평순 모음

④ 3개의 고모음

⑤ 4개의 후설 모음

경민대, 20일까지 수시2차… 627명 선발



내달 1일 면접… 14일 합격자 발표

경민대학교는 오는 20일까지 2019학년도 수시2차 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시2차에서는 23개 학과에서 전체 모집정원 1573명 가운데 627명을 선발한다. 면접일은 12월 1일, 합격자 발표는 12월 14일이다.

면접실기전형을 실시하는 학과를 제외

한 일반전형은 학생부교과 100%를 반영하며, 특별전형 및 정원외 전형은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한다(면접학과 및 대졸자전형 제외). 특별전형은 동일계 출신자, 자격증 소지자, 취업자 경력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 및 정원외 전형 지원자는 자신의 지원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학과로는 국제비서과, 효충사관과, 호텔관광경영과, 융합소프트웨어과, 호텔외식서비스과, 뷰티케어과, 호텔외식조리과, 게임콘텐츠과, 영상콘텐츠과, 사회복지과, 간호학과(대졸자 전

형)가 있으며, 면접전형은 20% 반영된다. 실기전형 실시학과는 공연예술과, 레포츠·태권도과이며, 실기전형은 60% 반영된다.

성적반영방법은 학생부 교과성적의 경우 1,2학년(4개학기) 교과성적 중 최우수 2개학기의 전체 석차 등급을 적용하며, 간호학과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최우수 2개 영역 평균 등급 4.5등급 이내)이 적용된다.

정시는 12월 29일부터 1월 11일까지 모집하며, 면접일은 1월 17일,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 문제 | 정답 | 배점 | 문제 | 정답 | 배점 |
|----|----|----|----|----|----|
| 6 | ⑤ | 2 | 7 | ③ | 2 |
| 8 | ② | 2 | 9 | ② | 2 |
| 10 | ② | 3 | 11 | ③ | 2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국제대학교



대림대학교

수도권 TOP 8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연성대학교

우리가 취업 해결사!

수시 2차 2018. 11. 06(화) ~ 2018. 11. 20(화)

정 시 2018. 12. 29(토) ~ 2019. 01. 11(금)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ㄹ'로 끝나는 명사 '별', '술', '이틀'이 ⑦ '발가락', ⑧ '소나무', ⑨ '이튿날'과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받침 'ㄹ'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한다.

'소나무'에서는 '발가락'에서와는 달리 받침 'ㄹ'이 탈락하였고, '이튿날'에서는 받침이 'ㄹ'이 아닌 'ㄷ'이다. 모두 'ㄹ' 받침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현대 국어에는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뀌거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대 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발가락'은 중세 국어에서 대부분 '밟 가락'으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 'ㅅ'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밟 가락'은 구로 파악된다. 이는 '밟' 업지 가락(업지발가락)과 같은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후 'ㅅ'은 점차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고 합성이 내부의 사이시옷으로만 흔적이 남았는데, 이에 따라 중세 국어 '밟 가락'은 현대 국어 '발가락[발까락]'이 되었다.

'소나무'는 중세 국어에서 명사 '솔'에 '나무'의 옛말인 '나모'가 결합하고 'ㄹ'이 탈락한 합성이 '소나모'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이 될 때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솔'의 'ㄹ'이 탈락하였다.

'이튿날'은 중세 국어에서 자립 명사 '이틀'과 '날' 사이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이튿 날'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ㅅ'은 '이튿 밤', '이튿 길'에서의 'ㅅ'과 같은 것이다.

[A] 중세 국어에서 '이튿 날'은 '이튿 날'로도 나타났는데, 근대 국어로 오면서는 'ㄹ'이 탈락한 합성이 '이튿날'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ㅅ'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 가고,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튿날'의 표기와 관련하여 "같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튿날'로 적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의 'ㄷ'은 'ㄹ'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중세 국어 '몫 사롭'에서 온 '몫사람'에서처럼 'ㅅ'으로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12. 윗글을 참고할 때, ⑦~⑨과 같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예를 <보기>에서 각각 하나씩 찾아 그 순서대로 제시한 것은?

| <보기> | | | |
|---------|-----------|---------------|----------------|
| 무술(물+술) | 쌀가루(쌀+가루) | ① 솔방울, 무술, 날알 | ② 솔방울, 쌀가루, 날알 |
| 날알(날+알) | 솔방울(솔+방울) | ③ 푸나무, 무술, 선달 | ④ 쌀가루, 푸나무, 날알 |
| 선달(설+달) | 푸나무(풀+나무) | | |

① 솔방울, 무술, 날알
② 솔방울, 푸나무, 선달
③ 푸나무, 무술, 선달

④ 쌀가루, 푸나무, 날알

1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 | | | | | | | |
|--|--------------------------------------|----------|----------|--------------------------------|--------------------------------------|---------------------------|---------------|--|---------|
| [탐구 주제] | | | | | | | | | |
| ○ '술가락'은 '젓가락'과 달리 왜 첫 글자의 받침이 'ㄷ'일까? | | | | | | | | | |
| [자료]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중세 국어의 예</th> </tr> </thead> <tbody> <tr> <td>• 술 자보며 쟈 놀느니(술가락 잡으며 젓가락 놓으니)</td><td>• 술 글(술가락의 끝), 젓 가락 글(젓가락 끝), 수저(수저)</td></tr> <tr> <td>• 물(물리), 물 사롭(웃사람, 여러 사람)</td><td></td></tr> </tbody> </table> | | 중세 국어의 예 | | • 술 자보며 쟈 놀느니(술가락 잡으며 젓가락 놓으니) | • 술 글(술가락의 끝), 젓 가락 글(젓가락 끝), 수저(수저) | • 물(물리), 물 사롭(웃사람, 여러 사람) | | | |
| 중세 국어의 예 | | | | | | | | | |
| • 술 자보며 쟈 놀느니(술가락 잡으며 젓가락 놓으니) | • 술 글(술가락의 끝), 젓 가락 글(젓가락 끝), 수저(수저) | | | | | | | | |
| • 물(물리), 물 사롭(웃사람, 여러 사람)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근대 국어의 예</th> <th>현대 국어의 예</th> </tr> </thead> <tbody> <tr> <td>• 숯가락 장수(술가락 장사)</td><td>• *술료 밥을 뜨다</td></tr> <tr> <td>• 웃사롭(웃사람)</td><td>• 숯가락으로 밥을 뜨다</td></tr> <tr> <td></td><td>• 밥 한 술</td></tr> </tbody> </table> | | 근대 국어의 예 | 현대 국어의 예 | • 숯가락 장수(술가락 장사) | • *술료 밥을 뜨다 | • 웃사롭(웃사람) | • 숯가락으로 밥을 뜨다 | | • 밥 한 술 |
| 근대 국어의 예 | 현대 국어의 예 | | | | | | | | |
| • 숯가락 장수(술가락 장사) | • *술료 밥을 뜨다 | | | | | | | | |
| • 웃사롭(웃사람) | • 숯가락으로 밥을 뜨다 | | | | | | | | |
| | • 밥 한 술 | | | | | | | | |
| ※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 | | | | | | | |

- ① 중세 국어 '술'과 '저'는 중세 국어 '이틀'처럼 자립 명사라는 점에서 현대 국어 '술'과는 차이가 있군.
 ② 중세 국어 '술'과 '저'의 결합에서 'ㄹ'이 탈락한 합성이가 현대 국어 '수저'로 이어졌군.
 ③ 중세 국어 '술'과 '저'는 명사를 수식할 때, 중세 국어 '이틀'이나 '물'과 같이 모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할 수 있었군.
 ④ 근대 국어 '숯가락'이 현대 국어에 와서 '숟가락'으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튿날'의 경우와 같군.
 ⑤ 현대 국어 '숟가락'과 '웃사람'의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는 중세 국어 '술'과 '물'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ㄹ'이 탈락한 후 남은 'ㅅ'의 발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군.

14. <보기>의 ①~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
| ① 그는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다. | ⓐ | ⓑ |
| ② 바다가 눈이 부시게 파랗다. | ⓑ | ⓒ |
| ③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 ⓒ | ⓓ |

- ① ①의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군.
 ② ②의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③ ③의 '별을'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이군.
 ④ ④의 '좋은'과 ⑤의 '반짝이는'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군.
 ⑤ ⑤의 '눈이 부시게'와 ④의 '반짝이는'은 수식의 기능을 하는군.

15. <보기>를 활용하여 국어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표제어 ①와 예문 ②, ③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
| ① 약속 날짜를 너무 <u>발게</u> 잡았다. | ⓐ |
| ② 서로 <u>발게</u> 앉아 더위를 참기 어려웠다. | ⓑ |
| ③ 시간이 더 필요한데 제출 기한을 너무 <u>바투</u> 잡았다. | ⓒ |
| ④ 어머니는 아들에게 <u>바투</u> 다가가 두 손을 움켜쥐었다. | ⓓ |

| <보기> | | |
|-------------------------------|---|---|
| ⓐ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 | ⓐ | ⓑ |
| ⓑ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 | ⓑ | ⓒ |
| ⓒ 새로 산 바지가 밭에 밭목이 다 보인다. | ⓐ | ⓑ |
| ⓓ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심하거나 먹는 양이 적다. | ⓐ | ⓑ |
| ⓓ 우리 아들은 입이 너무 밭어서 큰일이야. | ⓐ | ⓑ |

| ⓐ | ⓑ | ⓒ |
|------|---|---|
| ① 발게 | ⓐ | ⓑ |
| ② 발게 | ⓐ | ⓑ |
| ③ 발게 | ⓐ | ⓑ |
| ④ 바투 | ⓐ | ⓑ |
| ⑤ 바투 | ⓐ | ⓑ |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짊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같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같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②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대진대, 정시 가·나·다군서 수능 100%로 선발



예체능, 수능 30%·실기 70% 반영

대진대학교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 가, 나, 다군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군별로 가군에서는 10개 학(부)과(글로벌 경제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지역학부, 수학과, 생명화학부,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휴먼건축

공학부) 신입생을 뽑는다.

나군에서는 12개 학(부)과(공공인재법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헌정보학과, 휴먼IT융합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에너지환경공학부, 컴퓨터응용기계공학과, 신소재학과, 산업공학과)이다.

다군은 9개 학(부)과(대순종학과, 한국어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문예창작학과, 현대조형학부, 디자인학부, 연극영화학부, 스포츠과학과)은 실기위주전형으로 선발하며 수능 30%, 실기 70%를 반영한다.

초과학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가, 나, 다군의 학(부)과는 수능 위주(일반전형)으로 선발하며 수능 100%를 반영한다. 단, 다군의 예체능계열(현대조형학부, 디자인학부, 연극영화학부, 스포츠과학과)은 실기위주전형으로 선발하며 수능 30%, 실기 70%를 반영한다.

수능성적 반영 방법은 국어, 영어, 수학(가/나)영역 중 상위 성적 2개 영역과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중 1개 과목을 반영한다. 이때 자연공학계열지원자의 경우에 한하여 수학(가)은 5%, 과학탐구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한국사는 지원자격으로 반영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우정 입학홍보처장



◀ 대진대학교 소동상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 문제 | 정답 | 배점 | 문제 | 정답 | 배점 |
|----|----|----|----|----|----|
| 12 | ② | 2 | 13 | ⑤ | 3 |
| 14 | ③ | 2 | 15 | ⑤ | 2 |

세상에서 으뜸가는 세종대학교

(世宗 : 세상 세, 으뜸 종)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2019 THE 세계대학평가 국내 11위

2018 Leiden 세계대학평가 국내 4위

2018 QS-조선일보 아시아 대학평가 아시아 TOP 1% 대학

세종대학교
2019학년도
수시모집
면접·논술고사 일정

| | | | | | | |
|-------------------------|---------|--------------------------------------|-----------------|-------|-------------------------------|------------------------------|
| 면접고사 | 예체능 특기자 | 영화예술학과 - 연출제작 | 2018. 10. 27(토) | 논술우수자 | 인문계열 | 2018. 11. 24(토) 10시 ~ 12시 |
| | | 인문계열 | 2018. 12. 2(일) | | | |
| 창의인재 | 자연계열 |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전자정보공학대학 공과대학 | 2018. 12. 2(일) | 자연계열 |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2018. 11. 25(일) 10시 ~ 12시 |
| |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2018. 12. 1(토) | | 전자정보공학대학 공과대학 | 2018. 11. 25(일) 15시 ~ 17시 |
| 고른기회 서해5도 사회기여 및 배려자 | | 인문계열 | 2018. 11. 17(토) | | | |
| | | 자연계열 | | | | |
|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 | 2018. 11. 17(토) | | | | |



세종대학교

내용을 이해하라는 판결은 ①나올 수 없다. 그럼 A의 소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로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다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⑤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제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 ②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③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법원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 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17. ①, 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 ② ①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 ③ ①과 ⑤는 ①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⑤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 ④ ①과 ⑤는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 ⑤ ①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⑤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8. ④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 ②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 ③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④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 ⑤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 ①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 ②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20. 문맥상 의미가 ④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오랜 연구 끝에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 ②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니 내 마음이 누그러졌다.
- ③ 우리 마음은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산간 지역이다.
- ④ 이 책에 나오는 옛날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어 보자.
- 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 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와 차 사이에는 물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이쁜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그들의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네가 언제나 또 온단 말이냐?'

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거나 하는 것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쁜아."

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병하니 딸의 옆 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직을 두어 번 울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 치게 놀라며,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정신 채려, 조심해서, 해라"

그러나 ⑦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어 번 울 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이쁜이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 서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른다. 그 마음속을 알아주면서도 아낙네들이, 경사에 눈물이 당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비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혼도해 버리고 말 것 같은 극도의 피로와, 또 이제는 이미 도저히 구할 길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그는 일시에 느꼈다.

제6절 몰락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그야, 외딸을 남을 주고 난 그 뒤에, 흘어머니의 의료용과 슬픔은 있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 개의 경사라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⑧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천 집에서는, 바로 이날에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프게도 온 집안이 시끌로 내려갔다.

A] [A]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لون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천 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처가 결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울 하숙에 남아 있을 뿐으로—(그러나, 그도 그로써 얼마 안 되어 충청북도 어느 지방의 '공의'가 되어 서울을 떠나고 말았다)—, 신천 집의 온 가족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간 주인의 처남까지도 바로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스무 해를 살아온 이 동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한번 기울어진 가운은 다시 어찌는 수 없어, 온 집안사람은, 언제든 당장이라도 서울을 떠날 수 있는 준비 아래, 오직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리 사람들도 그것을 단지 시일 문제로 알고 있었던 것이나, 그래도 이 신천 집의 몰락은, 역시 그들의 마음을 한때, 어둡게 해 주었다.

그러나 오직 그뿐이다. 이 도회에서의 폐잔자는 좀 더 남의 마음에 애달픔을 주는 일 없이 무심한 이의 눈에는, 참말 어디 불일이라도 보려 가는 사람같이,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작은 광고 차부에서 강화행 자동차를 탔다. 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⑨이발소 소년이, 용하게도 막, 그들의 이미 오래 전에 팔린 집을 나오는 일행을 발견하고 그래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뿐으로, 그들이 남부 끄립다 해서, 고개나마 번번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천변을 걸어 나가, 그대로 큰길로 사라지는 뒷모양이라도 훑깃 본 이는 몇 명이 못 된다. ⑩얼마 있다, 원래의 신천은 술집으로 변하고, 또 그들의 살던 집에는 좀 더 있다, 하숙 옥 간판이 걸렸다.

- 박태원, 「천변풍경」-

(나)

#68. 산비탈 길

뚜벅뚜벅 걷고 있는 철호.

#69. 폐난민 수용소 안(회상)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흘어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①: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O·L*—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

#70. 산비탈

철호가 땅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섰다. 황홀에 묻힌 거리.

#71. 자동차 안

해방촌의 골목길을 운전수가 땀을 빼며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보고

운전수: 손님!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겠는데요.

영호: 그럼 내립시다. 시시한 동네까지 몰구 오느라고 수고했소. 천 환파리 한 장을 꺼내 준다.

운전수: (공손히) 감사합니다.

#72. 철호의 방 안

철호의 아내가 만삭의 배를 안고 누더기를 풀고 있다. 옆에서 쿨쿨 자고 있는 혜옥.

영호: (들어오며) 혜옥아!

(중략)

#73. 철호의 집 부엌 안

민호가 팔다 남은 신문을 끼고 들어와 신들레를 끌르며

민호: 에이 날씨도 꽉 겨울 같네.

철호②: 어쨌든 너도 인젠 정신을 차려야지! 군대에서 나온지도 이태나 되잖니.

영호③: 정신 차려야죠. 그렇잖아도 금명간 판결이 날 겁니다.

철호④: 어디 취직을 해야지.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싫습니다.

철호: 그럼 뭐 꾸죽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용기?

영호: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철호: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아!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단 말이다.

영호: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녜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허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파리를 받고 코 훌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어다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푹푹 쑤시고 아픈 걸 견딘다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자긋자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려온 베티아를 풀어서 방구석에 펴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그건 억설이야.

영호: 억설이오?

철호: 네 말대로 꽉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야.

영호: 천만에요.

#75. 철호의 집 골목

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백을 걸친 명숙이가 엎드고 있다.

철호⑤: 그게 바루 억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영호⑥: 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단 말입니다.

-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 ①: 효과음(effect). 화면에 삽입된 음향.

* O·L(overlap):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쳐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 문제 | 정답 | 배점 | 문제 | 정답 | 배점 |
|----|----|----|----|----|----|
| 16 | ③ | 2 | 17 | ⑤ | 2 |
| 18 | ① | 2 | 19 | ③ | 3 |
| 20 | ① | 2 | | | |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의 양상을 다변화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22. (가)의 [이발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 ②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 ③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진위를 논평한다.
- ④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준다.
- ⑤ 천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한다.

2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 ②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 ③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 ⑤ 인물의 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24.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나)의 빠져 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의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나)의 '어금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자의 견딤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 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봄에도 누더기를 째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는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25. (나)의 '#68~#7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68의 장면에 이어지는 #69에서 '철호(⑥)'를 삽입하여 회상의 주체가 철호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② #69에서 '철호(⑥)'를 삽입하여 아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③ #69에서 '노래'를 활용하여 학창 시절 아내의 화면을 결혼 피로연장 아내의 화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④ #70에서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의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⑤ #70의 침묵과 #71의 대화를 상호 대비하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지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예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은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세롭게 보여 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 하였다.]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A]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를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의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증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曆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헌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불온한 요소로 **[여겼다]**.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예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백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백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백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백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백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 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백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 방식에서 구별되는군.
-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백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 문제 | 정답 | 배점 | 문제 | 정답 | 배점 |
|----|----|----|----|----|----|
| 21 | ⑤ | 2 | 22 | ① | 2 |
| 23 | ④ | 2 | 24 | ② | 2 |
| 25 | ⑤ | 2 | 26 | ⑤ | 3 |

“예비 대학생, 카메라로 새 취미에 빠져보세요”

수능을 마친 예비 대학생들이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 중 빠져지지 않는 것은 '카메라'다. 인스타그램 등 SNS 사진으로 개성을 표현하는 문화가 이어지며 더 좋은 사진을 위한 니즈가 강해지며 카메라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캐논이 선보인 미러리스 카메라 'EOS M50'은 휴대성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카메라다. 바디 무게 약 390g(배터리·메모리카드 포함)으로 실내, 야외 등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휴대성은 EOS M50의 가장 큰 강점이다.

또한 영상촬영에 특화된 제품으로 캐논 미러리스 최초로 4K 24p의 고해상도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며 회전형 터치 LCD와 손가락 터치를 통해 AF를 조정하는 '터치 & 드래그 AF', 스마트폰 연동 기능 등을 편리한 촬영부터 편집·콘텐츠 업로드까



캐논의 미러리스 카메라 'EOS M50'.

지 곧 바로 가능해 브이로그나 영상 등 1인 미디어에 최적화된 카메라는 평가를 받는다. 캐논은 올 겨울 카메라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캐논 겨울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한다. EOS M50뿐 아니라 DSLR 카메라 EO

S 200D를 구매하면 정품 배터리를 추가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또, '겨울맞이 프로모션' 이벤트 승인 완료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10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크리스마스 기프트 카드 등을 추첨을 통해 추첨한다. /구서윤 기자 yun2514@metroseoul.co.kr

17세기 웅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기론(氣論)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氣)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배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①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웅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배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내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중자의 말을 땅이 둑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배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

* 질점: 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
* 구 대칭: 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

27.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계획: 1문단을 헤아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를 한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 |
|--|-----------------------|
| 예측 및 질문 내용 | 점검 결과 |
| ○서양의 우주론에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 예측과 같음..... ① |
|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형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 예측과 다름..... ② |
|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 |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③ |
|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은 누구일까? |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④ |
| ○중국에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은 누구일까? |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⑤ |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 ② 서양 천문학의 전래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중국에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 ④ 중국에서는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
- ⑤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수험표 내면 TGI가 '빠네 파스타' 쏜다

TGI프라이데이스 수험생 응원 이벤트

미국 오리지널 캐주얼 라이닝 TGI 프라이데이스가 수능으로 지친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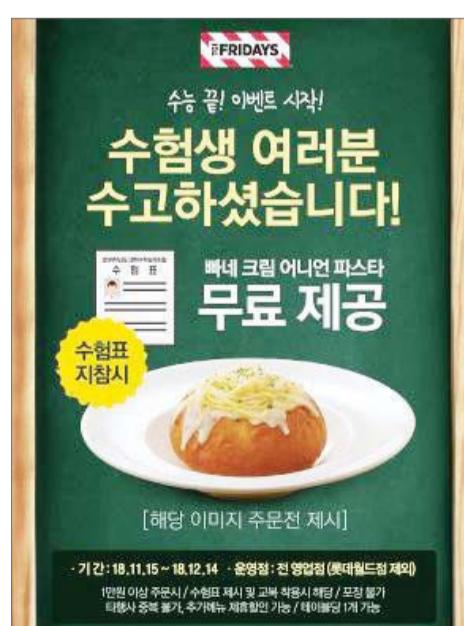
TGI프라이데이스는 수능 날인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수험표 제시 또는 교복 착용 후 1만원 이상 주문 시 '빠네 크림 어니언 파스타'를 무료로 제공한다.(롯데월드점 제외)

TGI프라이데이스 관계자는 "치열한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았을 수험생들이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TGI 프라이데이스의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TGI프라이데이스는 아메리칸 테이

스티 투어 '어 랫! 타워'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 '어 랫! 타워'는 TGI 프라이데이스가 지난 4월 메인 메뉴와 파스타, 샐러드, 사이드 메뉴를 1만 7900원에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선보인 '어 랫 플레이트' 인기에 힘입어 새로운 제품과 형태로 구성한 시즌2 제품이다. 이 제품은 모두 2가지로, 낙농업이 유명한 위스콘신 주를 모티브로 치즈와 크림을 이용해 만든 크리미 치즈스테이크와 위스콘신 체다 파스타, 아이다호 후라이&후랑크 소시지로 구성한 '위스콘신 타워'와 웨스턴 스타일과 멕시코 음식이 결합된 텍스-멕스(Tex-Mex)로 만든 메뉴인 비프 화이타와 치킨 퀘사디야, 텍사스 나초로 구성된 '텍사스 타워'다. 가격은 각각 2만 2900원이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29. 윗글에 나타난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학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 ②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한 푸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 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이었다.
- ③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 ④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돋는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 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이었다.

⑥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⑦ 질량이 M 인 지구와 질량이 m 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 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⑧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⑨ 반지름이 R , 질량이 M 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 에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R+h$ 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30. 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국에서 서양 과학을 수용한 학자들은 자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여 하였다.
- ②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를 접대 성한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
- ③ 방이지는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였다.
- ④ 배문정은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과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였다.
- ⑤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

32. 문맥상 ①~⑤와 바꿔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 진작(振作)함
- ② ②: 고안(考案)했다
- ③ ③: 소지(所持)한
- ④ ④: 설정(設定)했다
- ⑤ ⑤: 시사(示唆)되어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꾀괴히 울어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 불어오던
- 응희(隆熙) 2년!

그래도 계절만은 천 년을 다채(多彩)하여
지붕에 박년출 남풍에 자라고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벨은 듯 피어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릉저릉 글 읽으셨다

왕고못때 제삿날 밤 옅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번문육례 사대주의의 육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신월(新月)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내 스스로 고고(呱呱)의 곡성(哭聲)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명(命)이나 질라 하여 할머니는 돌매라 이름 지었다오
-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 고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
* 곡성: 사람이 죽어 슬퍼서 크게 우는 소리.

(나)

사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썼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둑은 정맥은
바르르 떤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둑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사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 문제 | 정답 | 배점 | 문제 | 정답 | 배점 |
|----|----|----|----|----|----|
| 27 | ② | 2 | 28 | ⑤ | 2 |
| 29 | ④ | 2 | 30 | ⑤ | 2 |
| 31 | ② | 3 | 32 | ② | 2 |

lalavla LOHB[®]

전국의 랄라블라, 롭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LEADERS

피부가입는 보습 한 겹

리더스 인솔루션 바세린 모이스처 마스크

· 24시간 보습지속력 임상 완료 · 피부 진정효과 임상 완료
(주)대한피부과학연구소

리더스코스메틱은
LPGA 공식 화장품 후원사입니다www.leaderscosmetics.com[/leaderscosmetic](https://facebook.com/leaderscosmetic)[/leaders_cos](https://twitter.com/leaders_cos)leaderseshop.com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둘 것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 ④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34.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반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 ② [B]: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 ③ [C]: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춘수는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사나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사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②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있는 사나이’, ‘새로 들풀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③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 ④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군.
- ⑤ ‘아느’,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 시킨 것이군.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점이 심복을 보내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옥에 가두니, 경업이 옥에 갇혀 생각하되,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 일을 모르고 구치 아니시는고?’
 하며 주야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옥졸이 자점의 부족(附囑)*을 들은 고로 물도 주지 아니하여 경업이 더욱 한 하더니, 진우(典獄) 관원은 강직한지라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더러 왈,
 “장군을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흥계니,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으라.”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흥계로 알고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바로 물을 날려 옥문(獄門)을 깨치고 궐내에 들어가 상을 뺏고 청죄한데, 상이 경업을 보시고 민거 가로되,
 “경이 만리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며 반가움이 끝이 없거늘 무삼 일로 청죄하느뇨?”
 경업이 돈수사죄 왈,
 “신이 무년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만사 무석이오나, 대명(大明)과 함께 호왕을 배어 병자년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간인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다가 친행으로 살아 돌아온더니, 의주(義州)에서 잡혀 아무 연고인 줄 알지 못하였고 오늘을 당하와 천안(天顏)을 뵈오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상이 들으시고 대경하사 신하더러 왈,
 “경업을 무슨 죄로 잡아온고?”
 하시고 자점을 폐초(牌招)하자 실사를 물으시니, 자점이 속이지 못하여 주왈,
 “경업이 역적이옵기로 잡아 가두고 계달코자 하였나이다.”
 경업이 대로하여 고성대매 왈,
 “이 몸쓸 역적아! 들으라.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거늘 무엇이 부족하여 모반할 마음을 두어 나를 해코자 하느뇨?”
 자점이 듣고 무언이거늘, 상이 노하여 왈,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또한 만고충신이거늘 네 무슨 일로 죽이려 하느뇨?”
 하시고,
 “자점과 함께한 자를 금부에 가두고 경업은 물려가 쉬게 하라.”
 하시다.

[A] 경업이 사온하고 퇴궐할세, 자점은 궐문 밖에 나와 심복 수십 명을 매복하였다가, 경업이 나옴을 보고 불시에 달려 들어 난타하니, 경업이 아무리 용맹한들 손에 촌철이 없는 지라. 여러 번 맞아 중상하매 자점이 용사들을 분부하여 경업을 옥에 가두고 금부로 가니라.
 이때 대군이 시자(侍者)더러 문왈,
 “임 장군이 입성하였으나 지금 어디 있느뇨?”
 시자가 대왈,
 “소인 등은 모르나이다.”
 대군이 의심하여 바삐 입궐하여 경업의 거처를 물되, 상이 수말을 이르시니 대군이 주왈,
 “자점이 이런 만고충신을 해하려 하오니 이는 역적이라. 엄치 하소서.”
 하고, 명일을 기다려 친히 경업을 가 보려 하시더라.

[B] 차시,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많이 받아 천명이 진하게 되매 분기대발하여 신음하다 죽으니, 시년 사십팔 세요, 기축(己丑) 9월 26일이라.

(종락)

자점이 반심을 품은 지 오래다가 절도(絕島)에 안치되며 더욱 양양(快快)하여 불죽지심이 나타나거늘, 우의정 이시백이 자점의 일을 아뢰니, 상이 놀라 금부도사를 보내 엄형 국문하신 후 옥에 가두었더니, 이날 범한 꿈을 염으시니, 경업이 나아와 주왈,
 “홍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되었사오니 바빠 국문하옵소서.”
 하고 울며 가거늘, 상이 놀라 깨달으시니 경업이 앞에 있는 듯 한지라. 상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날이 밝으매 자점을 훌려 국문하시니, 자점이 자복하여 역심을 품은 일과 경업을 모해한 일을 승복하거늘, 상이 노하여 자점의 삼족을 다 내어,
 “저자 거리에서 죽이라.”
 하시고,
 “그 동류를 다 문죄하라.”
 하시며, 경업의 자식들을 불러 하교 왈,
 “너희 아버지가 자결한 줄로 알았더니, 꿈에 와 ‘자점의 모해로 죽었다.’ 하기로 내어 주나니 원수를 갚으라.”
 하시다.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 부족: 부탁하여 맡김.
 * 폐초: 임금이 승자를 시켜 신하를 부름.
 * 양양하여: 매우 마음에 차지 아니하거나 아속하여.

3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의 대립 구도를 통해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죽음을 제시하여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다.
- ③ 대화의 내용을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악인의 횡포를 징벌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적대자와의 저략 대결을 통해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업은 옥에 갇히기 전부터 거짓 조서 때문에 자점의 흥계를 알고 있었다.
- ② 옥졸은 자점의 부탁을 받고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했다.
- ③ 대군은 자점을 의심하며 경업에게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
- ④ 우의정 이시백은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
- ⑤ 상은 꿈에 나타난 경업의 밀언 이후 자점의 자복을 믿어내었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임장군전」을 읽은 당시 독자들은 책의 어백과 말미에 특정 대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다양한 필사기를 남겼다. ‘식자총’은 “①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워 봇을 범춘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②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네.”라며 경업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평민총’은 “③ 슬프다. 임 장군이여. 남의 손에 죽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라.”라며 숙명론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④ 조희하고 나오는 것을 문외의 무사로 박살하니 그 아니 가엾지 아니리오.”라는 안타까운 반응을 남기거나, “⑤ 사람마다 알게 하기는 동국총신의 말임에 혹 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함이라.”라는 필사기로 남겼다. ①, ②, ③은 경업이 죽는 대목에, ④과 ⑤는 경업이 자점에게 괴롭히되는 대목에 남아 있는 필사기이다.

- ① [B]를 읽은 식자총은, ②을 통해 자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군.
- ② [A]를 읽은 식자총은, ③을 통해 경업의 시련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군.
- ③ [B]를 읽은 평민총은, ④을 통해 경업의 죽음이 자점 때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죽음에 대해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④ [A]를 읽은 평민총은, ⑤을 통해 자점에 비판하면서도 그의 행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군.
- ⑤ [B]를 읽은 평민총은, ⑥을 통해 충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 지기를 바라고 있군.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 문제 | 정답 | 배점 | 문제 | 정답 | 배점 |
|----|----|----|----|----|----|
| 33 | ① | 2 | 34 | ④ | 3 |
| 35 | ③ | 2 | 36 | ⑤ | 2 |
| 37 | ⑤ | 2 | 38 | ④ | 3 |

수능 끝… ‘메디유 아미노 앰플’로 피부관리 해볼까

리더스코스메틱 122만병 판매 돌파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리더스코스메틱의 ‘메디유 아미노 H.A. 모이스처 앰플’이 출시 4달 만에 122만병 판매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정식 출시된 ‘메디유 아미노 H.A. 모이스처 앰플’은 집중 보습 관리를 위한 제품으로, 끈적임 없는 촉촉한 마무리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았다. 특히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를 통해 ‘양세종 일주일 앰플’로 불리는 이 제품은 수분, 보습 성분이 98% 이상 함유된 고수분 제형으로 하루 한 병씩 7일 간 사용하는 7-



코스메틱 브랜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 고 밝혔다.

한편 ‘일주일 앰플’로 불리는 이 제품은 수분, 보습 성분이 98% 이상 함유된 고수분 제형으로 하루 한 병씩 7일 간 사용하는 7-

DAY 수분 집중 프로그램으로, 앰플 한 병에는 17종류의 천연보습인자로 구성된 아미노산 콤플렉스와 2중 히알루론산이 함유돼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⑦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⑧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은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편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편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편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편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놨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④ 내가 만약 그 기차를 놨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것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면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증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3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배증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 ②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
- ③ 편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 ④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 ⑤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40. ⑦, ⑧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⑦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 ③ ⑦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 ④ 만약 ⑦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 ⑤ ⑦과 ⑧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④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지각을 한 가능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②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기차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 ③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 ④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그 가능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기 때문이다.

4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때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말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천두 폭 초석(草席) 뚝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굵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睡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널은 앞잎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 둑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정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⑦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중략)

그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様) 바라보고
필담(筆談)으로 써서 뵈되 전문(傳聞)에 퇴석(退石) 선생
쉬 짓기가 유명(有名)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엎디에 묻잡나니
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퇴석인가 하나이다
내 웃고 써서 뵈되 늙고 병든 둔한 글을
포장(褒獎)을 과허 하니 수괴(羞愧)기 가이 없다
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小國)의 친한 선비
세상에 났삼다가 ⑧ 장(壯)한 구경 하였으니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아롱보(襪)에 무엇 싸고 삼목궤(杉木櫃)에 무엇 넣어
이마에 손을 얹고 엎디에 들어거늘
받아 놓고 꾀봉(皮封)* 보니 봉(封)한 위에 쓰였으되
각색 대단(大綴) 삼단이요 사십삼 낭 은자(銀子)로다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뵈되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봄으로서
온화를 갖다 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 김인겸, 「일동장유가」-

* 지합: 땅이 움푹하게 주저앉은 곳.
* 차아: 줄기에서 벌어 나간 결가지.
* 수괴: 부끄럽고 창피함.
* 꾀봉: 걸봉.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물의 역동성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 ② 거대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악화된 기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석물의 연약한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목전에 닥친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4. ⑦과 ⑧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과 ⑧은 모두 화자의 고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⑦과 ⑧은 모두 화자가 구경하는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
- ③ ⑦은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을, ⑧은 인물의 능력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 ④ ⑦은 화자의 관찰력에 대한, ⑧은 화자의 창조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담고 있다.
- ⑤ ⑦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만족을, ⑧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사행 가사인 「일동장유가」에는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의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 필담 속에는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 문답의 주요 내용, 의사소통의 심층적 의미, 선비로서의 예법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 ① [A]는 [B]~[D]의 필담이 시작되는 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B]의 ‘빠른 재주’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C]의 ‘늙고 병든 둔한 글’은 자신의 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보여 주는군.
- ③ [B]의 ‘필담으로 써서 뵈되’와 [C]의 ‘내 웃고 써서 뵈되’를 통해,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군.
- ④ [B]의 ‘귀한 별호’와 [D]의 ‘소국의 친한 선비’는 선비의 예법을 동원하여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칭찬한 표현이군.
- ⑤ [D]에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찬사가 나타나 있고, [E]에는 상대의 글 값에 대한 ‘나’의 거절이 드러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 문제 | 정답 | 배점 | 문제 | 정답 | 배점 |
|----|----|----|----|----|----|
| 39 | ① | 2 | 40 | ② | 2 |
| 41 | ③ | 2 | 42 | ④ | 3 |
| 43 | ① | 2 | 44 | ③ | 2 |
| 45 | ④ | 3 | | | |

제2교시
[가]형(홀수형)

수학영역

1. 두 벡터 $\vec{a} = (1, -2)$, $\vec{b} = (-1, 4)$ 에 대하여
벡터 $\vec{a} + 2\vec{b}$ 의 모든 성분의 합은? [2점]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5. 함수 $y = 2^x + 2$ 의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m 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함수 $y = \log_2 8x$ 의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2 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와 직선 $y = x$ 에 대하여
대칭일 때, 상수 m 의 값은? [3점]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9. 함수 $f(x) = \frac{1}{1+e^{-x}}$ 의 역함수를 $g(x)$ 라 할 때,
 $g'(f(-1))$ 의 값은? [3점]

- ① $\frac{1}{(1+e)^2}$ ② $\frac{e}{1+e}$ ③ $\left(\frac{1+e}{e}\right)^2$
④ $\frac{e^2}{1+e}$ ⑤ $\frac{(1+e)^2}{e}$

6. 초점이 F인 포물선 $y^2 = 12x$ 위의 점 P에 대하여
 $\overline{PF} = 9$ 일 때, 점 P의 x 좌표는? [3점]

- ① 6 ② $\frac{13}{2}$ ③ 7 ④ $\frac{15}{2}$ ⑤ 8

2. $\lim_{x \rightarrow 0} \frac{x^2 + 5x}{\ln(1+3x)}$ 의 값은? [2점]

- ① $\frac{7}{3}$ ② 2 ③ $\frac{5}{3}$ ④ $\frac{4}{3}$ ⑤ 1

10. 주머니 속에 2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구슬 7개가 들어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구슬에 적힌 두 자연수가 서로소일
확률은? [3점]

- ① $\frac{8}{21}$ ② $\frac{10}{21}$ ③ $\frac{4}{7}$ ④ $\frac{2}{3}$ ⑤ $\frac{16}{21}$

7. 곡선 $e^x - xe^y = y$ 위의 점 $(0, 1)$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점]

- ① $3-e$ ② $2-e$ ③ $1-e$ ④ $-e$ ⑤ $-1-e$

3. 좌표공간의 두 점 A($2, a, -2$), B($5, -2, 1$)에 대하여
선분 AB를 2:1로 내분하는 점이 x 축 위에 있을 때,
a의 값은? [2점]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11. $0 \leq \theta < 2\pi$ 일 때, x에 대한 이차방정식

$$6x^2 + (4\cos\theta)x + \sin\theta = 0$$

i)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모든 θ 의 값의 범위는
 $\alpha < \theta < \beta$ 이다. $3\alpha + \beta$ 의 값은? [3점]

- ① $\frac{5}{6}\pi$ ② π ③ $\frac{7}{6}\pi$ ④ $\frac{4}{3}\pi$ ⑤ $\frac{3}{2}\pi$

8.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left(n, \frac{1}{2}\right)$ 을 따르고

$E(X^2) = V(X) + 25$ 를 만족시킬 때, n의 값은? [3점]

- ① 10 ② 12 ③ 14 ④ 16 ⑤ 18

4.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와 B^C 은 서로 배반사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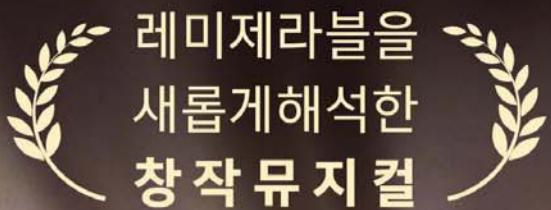
$$P(A) = \frac{1}{3}, P(A^C \cap B) = \frac{1}{6}$$

일 때, $P(B)$ 의 값은? (단, A^C 은 A의 여사전이다.) [3점]

- ① $\frac{5}{12}$ ② $\frac{1}{2}$ ③ $\frac{7}{12}$ ④ $\frac{2}{3}$ ⑤ $\frac{3}{4}$

제2교시(가)형(홀수형) 수학영역 정답

| 문제 | 정답 | 배점 | 문제 | 정답 | 배점 |
|----|----|----|----|----|----|
| 1 | ⑤ | 2 | 2 | ③ | 2 |
| 3 | ④ | 2 | 4 | ② | 3 |
| 5 | ③ | 3 | 6 | ① | 3 |
| 7 | ③ | 3 | 8 | ① | 3 |
| 9 | ⑤ | 3 | 10 | ④ | 3 |
| 11 | ④ | 3 | | | |



장발장,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해!

LE MUSICAL

레미제라블 자베르

2018. 09.04 ~ 12.30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

| PD · 총제작감독 | 이태현 | 연출 | 김도형 | 작곡 · 음악감독 | 허수현 | 각색 | 오리라 | 안무감독 | 박철중 | 무대감독 | 신정식
| 조연출 · 조안무 | 최장수 | 조명디자인 | 정필균 | 음향디자인 | 안형록 | 영상디자인 | 김태윤 | 포스터디자인 | 강동성 | 의상디자인 | 신은혜

| 협찬 | BENIKEA Premier HOTEL BERNONI  에듀팡

12. 네 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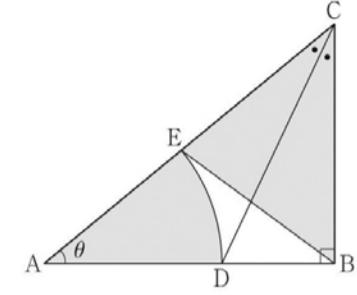
- (가) 각 학생은 적어도 1개의 초콜릿을 받는다.
(나) 학생 A는 학생 B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받는다.

① 11 ② 13 ③ 15 ④ 17 ⑤ 19

15. 어느 회사 직원들의 어느 날의 출근 시간은 평균이 66.4 분, 표준편차가 15 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날 출근 시간이 73 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 73 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서 20%가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 이 날 출근한 이 회사 직원들 중 임의로 선택한 1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였을 확률은? (단, Z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P(0 \leq Z \leq 0.44) = 0.17$ 로 계산한다.) [4점]

① 0.306 ② 0.296 ③ 0.286 ④ 0.276 ⑤ 0.266

18. 그림과 같이 $\overline{AB} = 1$, $\angle B = \frac{\pi}{2}$ 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ngle C$ 를 이등분하는 직선과 선분 AB의 교점을 D,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overline{AD} 인 원과 선분 AC의 교점을 E라 하자. $\angle A = \theta$ 일 때, 부채꼴 ADE의 넓이를 $S(\theta)$, 삼각형 BCE의 넓이를 $T(\theta)$ 라 하자. $\lim_{\theta \rightarrow 0^+} \frac{S(\theta)^2}{T(\theta)}$ 의 값은? [4점]



① $\frac{1}{4}$ ② $\frac{1}{2}$ ③ $\frac{3}{4}$ ④ 1 ⑤ $\frac{5}{4}$

13. 좌표공간에서 점 $(2, 0, 5)$ 를 지나고 직선

$x - 1 = 2 - y = \frac{z+1}{2}$ 을 포함하는 평면이 x 축과 만나는 점의 x 좌표는? [3점]

① $\frac{9}{2}$ ② 4 ③ $\frac{7}{2}$ ④ 3 ⑤ $\frac{5}{2}$

16. $x > 0$ 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f(x)$ 가 모든 양수 x 에 대하여

$$2f(x) + \frac{1}{x^2} f\left(\frac{1}{x}\right) = \frac{1}{x} + \frac{1}{x^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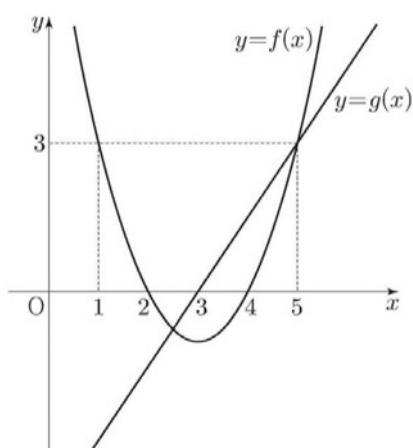
을 만족시킬 때, $\int_{\frac{1}{2}}^2 f(x)dx$ 의 값은? [4점]

- ① $\frac{\ln 2}{3} + \frac{1}{2}$ ② $\frac{2\ln 2}{3} + \frac{1}{2}$ ③ $\frac{\ln 2}{3} + 1$
④ $\frac{2\ln 2}{3} + 1$ ⑤ $\frac{2\ln 2}{3} + \frac{3}{2}$

14. 이차함수 $y=f(x)$ 의 그래프와 일차함수 $y=g(x)$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

$$\left(\frac{1}{2}\right)^{f(x)g(x)} \geq \left(\frac{1}{8}\right)^{g(x)}$$

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 의 값의 합은? [4점]



① 7 ② 9 ③ 11 ④ 13 ⑤ 15

17. 다음은 집합 $X = \{1, 2, 3, 4, 5, 6\}$ 과 함수 $f: X \rightarrow X$ 에 대하여 합성함수 $f \circ f$ 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인 함수 f 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함수 f 와 함수 $f \circ f$ 의 치역을 각각 A 와 B 라 하자.
 $n(A)=6$ 이면 함수 f 는 일대일 대응이고, 함수 $f \circ f$ 도 일대일 대응이므로 $n(B)=6$ 이다.
또한 $n(A) \leq 4$ 이면 $B \subset A$ 이므로 $n(B) \leq 4$ 이다.
그러므로 $n(A)=5$, 즉 $B=A$ 인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

- (i) $n(A)=5$ 인 X 의 부분집합 A 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가)이다.
(ii) (i)에서 선택한 집합 A 에 대하여, X 의 원소 중 A 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k 라 하자.
 $n(A)=5$ 이므로 집합 A 에서 $f(k)$ 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나)이다.
(iii) (i)에서 선택한 $A = \{a_1, a_2, a_3, a_4, a_5\}$ 와 (ii)에서 선택한 $f(k)$ 에 대하여, $f(k) \in A$ 이며 $A = B$ 이므로
 $A = \{f(a_1), f(a_2), f(a_3), f(a_4), f(a_5)\} \dots (*)$
이다. (*)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집합 A 에서 집합 A 로의 일대일 대응의 개수와 같으므로
(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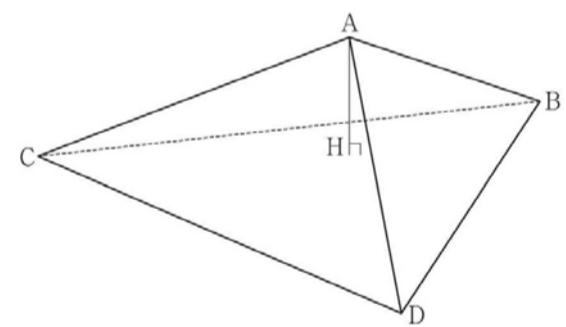
따라서 (i), (ii), (iii)에 의하여 구하는 함수 f 의 개수는
(가) \times (나) \times (다)이다.

위의 (가), (나), (다)에 알맞은 수를 각각 p, q, r 라 할 때,
 $p+q+r$ 의 값은? [4점]

① 131 ② 136 ③ 141 ④ 146 ⑤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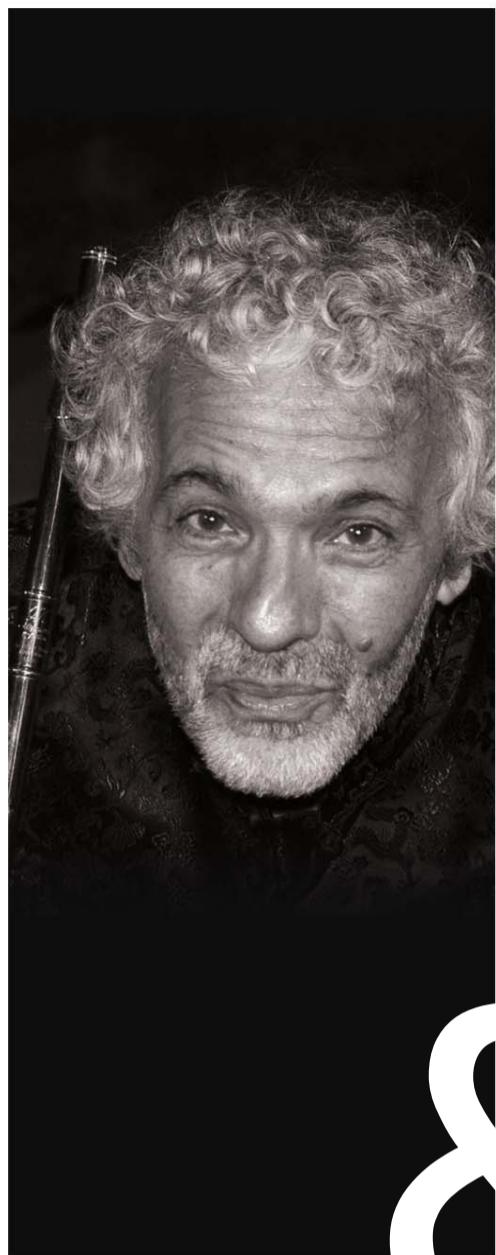
19.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 BCD를 한 면으로 하는 사면체 ABCD의 꼭짓점 A에서 평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할 때, 점 H는 삼각형 BCD의 내부에 놓여 있다. 삼각형 CDH의 넓이는 삼각형 BCH의 넓이의 3배, 삼각형 DBH의 넓이는 삼각형 BCH의 넓이의 2배이고 $\overline{AH} = 3$ 이다. 선분 BD의 중점을 M, 점 A에서 선분 CM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 할 때, 선분 AQ의 길이는? [4점]

① $\sqrt{11}$ ② $2\sqrt{3}$ ③ $\sqrt{13}$ ④ $\sqrt{14}$ ⑤ $\sqrt{15}$



제2교시(가)형(홀수형) 수학영역 정답

| 문제 | 정답 | 배점 | 문제 | 정답 | 배점 |
|----|----|----|----|----|----|
| 12 | ② | 3 | 13 | ① | 3 |
| 14 | ④ | 4 | 15 | ⑤ | 4 |
| 16 | ② | 4 | 17 | ① | 4 |
| 18 | ② | 4 | 19 | ③ | 4 |



&

Marc Grauwels & Min-Kyeong Chun
마크 그로웰스 & 천민경
플루트 듀오 리사이틀
 Flute Duo Recital

2018.11.21 WED 8 pm



금호아트홀 연세

KUMHO ART HALL YONSEI

주 최 square pig^{entertainment}



WORLD CULTURE NETWORKS

입장권 전석 30,000원 (대학생까지 및 단체 50% 할인)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www.ticketpark.com

문의 02-2183-1292

PETITS COCHONS
 EUPHONIUM & TUBA QUARTET 1ST CONCERT
DIVERSIONS
 뽀띠꼬송
 JOHN STEVENS & MOON JI SUN

2018.11.25 SUN 7:30 pm



주 최 뽀띠꼬송 유포니움 & 튜바 양상불 주 관 WCN



WORLD CULTURE NETWORKS

후 원 서울문화재단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동문회

입장권 전석 20,000원 (대학생까지 50% 할인)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www.ticketpark.com

문의 02-2183-1292



20. 점 $\left(-\frac{\pi}{2}, 0\right)$ 에서 곡선 $y = \sin x$ ($x > 0$)에 접선을 그어 접점의 x 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순으로 모두 나열할 때, n 번째 수를 a_n 이라 하자.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점]

<보기>

① \neg ② \neg, \sqcup ③ \neg, \sqcap
 ④ \sqcup, \sqcap ⑤ \neg, \sqcup, \sqcap

①. $\tan a_n = a_n + \frac{\pi}{2}$
 ②. $\tan a_{n+2} - \tan a_n > 2\pi$
 ③. $a_{n+1} + a_{n+2} > a_n + a_{n+3}$

21.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 의 값은? [4점]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2\{f(x)\}^2 f'(x) = \{f(2x+1)\}^2 f'(2x+1)$ 이다.
 (나) $f\left(-\frac{1}{8}\right) = 1$, $f(6) = 2$

- ① $\frac{\sqrt[3]{3}}{6}$ ② $\frac{\sqrt{3}}{3}$ ③ $\frac{\sqrt[3]{3}}{2}$ ④ $\frac{2\sqrt[3]{3}}{3}$ ⑤ $\frac{5\sqrt[3]{3}}{6}$

22. ${}_6P_2 - {}_6C_2$ 의 값을 구하시오. [3점]

23. $\tan \theta = 5$ 일 때, $\sec^2 \theta$ 의 값을 구하시오. [3점]

24.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 의 시작 t ($t \geq 0$)에서의 위치 (x, y) 가

$$x = 1 - \cos 4t, y = \frac{1}{4} \sin 4t$$

이다. 점 P 의 속력이 최대일 때, 점 P 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시오. [3점]

25. $\int_0^\pi x \cos(\pi-x) dx$ 의 값을 구하시오. [3점]

29. 좌표평면에서 넓이가 9인 삼각형 ABC의 세 변 AB, BC, CA 위를 움직이는 점을 각각 P, Q, R라 할 때,

$$\overrightarrow{AX} = \frac{1}{4}(\overrightarrow{AP} + \overrightarrow{AR}) + \frac{1}{2}\overrightarrow{AQ}$$

를 만족시키는 점 X가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가 $\frac{q}{p}$ 이다.

$p+q$ 의 값을 구하시오. (단, p 와 q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4점]

26. 어느 지역 주민들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평균이 m 분, 표준편차가 σ 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지역 주민 중 16명을 임의추출하여 구한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의 표본평균이 75분일 때, 모평균 m 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이 $a \leq m \leq b$ 이다. 이 지역 주민 중 16명을 다시 임의추출하여 구한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의 표본평균이 77분일 때, 모평균 m 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구간이 $c \leq m \leq d$ 이다.
 $d-b=3.86$ 을 만족시키는 σ 의 값을 구하시오.
 (단, Z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P(|Z| \leq 1.96) = 0.95$, $P(|Z| \leq 2.58) = 0.99$ 로 계산한다.) [4점]

30. 최고차항의 계수가 6π 인 삼차함수 $f(x)$ 에 대하여

함수 $g(x) = \frac{1}{2+\sin(f(x))}$ ○ $x=\alpha$ 에서 극대 또는 극소이고,
 $\alpha \geq 0$ 인 모든 α 를 작은 수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한 것을 $\alpha_1, \alpha_2, \alpha_3, \alpha_4, \alpha_5, \dots$ 라 할 때, $g(x)$ 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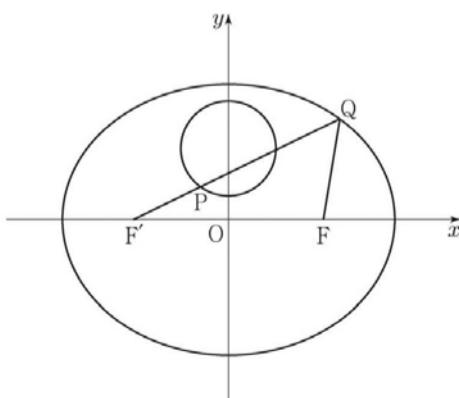
(가) $\alpha_1 = 0$ 이고 $g(\alpha_1) = \frac{2}{5}$ 이다.
 (나) $\frac{1}{g(\alpha_5)} = \frac{1}{g(\alpha_2)} + \frac{1}{2}$

$g'\left(-\frac{1}{2}\right) = a\pi$ 라 할 때, a^2 의 값을 구하시오.
 (단, $0 < f(0) < \frac{\pi}{2}$) [4점]

27.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6 이하의 자연수 m 에 대하여 m 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 하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모든 m 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4점]

28. 두 초점이 F, F'인 타원 $\frac{x^2}{49} + \frac{y^2}{33} = 1$ 이 있다.

원 $x^2 + (y-3)^2 = 4$ 위의 점 P에 대하여 직선 F'P가 이 타원과 만나는 점 중 y좌표가 양수인 점을 Q라 하자.
 $\overline{PQ} + \overline{FQ}$ 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4점]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2교시(가)형(홀수형) 수학영역 정답

| 문제 | 정답 | 배점 | 문제 | 정답 | 배점 |
|----|----|----|----|----|----|
| 20 | ⑤ | 4 | 21 | ④ | 4 |
| 22 | 15 | 3 | 23 | 26 | 3 |
| 24 | 4 | 3 | 25 | 2 | 3 |
| 26 | 12 | 4 | 27 | 8 | 4 |
| 28 | 11 | 4 | 29 | 53 | 4 |
| 30 | 27 | 4 | | | |



BROADWAY'S ALL-TIME KILLER HIT

CHICAGO

THE MUSICAL

뮤지컬 **시카고**

2018.12.14(금) ~ 25(화) 성남아트센터

2019학년도 수험생 5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기획사 1544-9857 예매시 적용(수험생 본인만)
- 티켓 수령은 공연당일 수험표 지참(미지참시 차액지불)

이 은 결 트 레 이 스

TRACE

이은결 <TRACE>

12.29(토) - 30(일) 성남아트센터 예매 인터파크티켓

주최 : 라이브아트 | 제작 : (주)EG PROJECT | 티켓가격 : R석 77,000원/S석 66,000원/A석 44,000원



무자비한 놈이
나타났다!

통다리살 치킨버거

TREX

티렉스 ₩3,500

New

